# 강산 변해도 끝없는 江·山 다툼

## 1991년 지자체 시행 이후 '연고권' 싸고 분쟁 치열

▶제암산 - 장흥군 對 보성군
▶수인산 - 장흥군 對 강진군
▶국사봉 - 장흥군 對 영암군
▶탐진강 - 장흥군 對 강진군

### 전남도 조정기능 발휘 못해 난개발 우려

산이나 강의 명칭과 관리를 둘러싸고 일선 지자체 사이에 기득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나 자연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91년 지방자치체 도입이후 전남도나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흥군 장동면과 보성군 웅치면 경계에 있는 '제암산(778m)'을 둘러싸고 장흥군과 보성군이 '장흥 제암산' '보성 제암산'이라고 주장하며 수십년째 기득권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장흥군과 보성군은 제암산에 별도의 휴양림과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 사업 및 철쭉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 장흥군 유치면에서 발원돼 강진만으로 이어지는 '탐진강' 역시 장흥지역에서는 예양강으로 불리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돼 체계적인 환경 보존 및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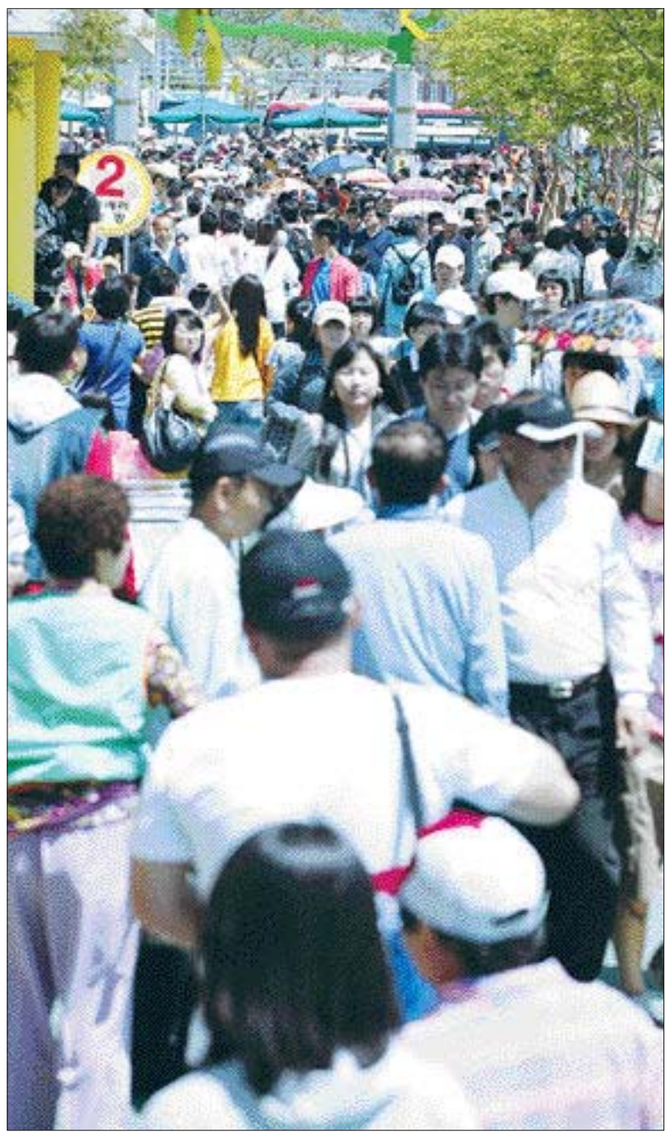
이밖에 장흥군 유치면과 강진군 병영면 경계에 있는 수인산, 영암군 금정면과 장흥군 유치면에 인접해 있는 국사봉의 경우도 각각 지자체간 지명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지명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전남도나 관련 부서는 적절한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자체간 분쟁을 조정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광역 자치단체나 중앙부서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함평 나비엑스포 관람객 '인산인해'



11일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이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아침 일찍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관람 인파는 오전 9시 각 전시관과 공연장 등을 가득 메웠고, 오전 11시께 3만 명을 넘어섰다. 1만2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엑스포 주차장도 수용 능력을 넘어섰으며 행사장 주변은 물론 함평읍 시가지 전 지역에 차량 행렬이 꼬리를 이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전 개통 코앞인데…

# 어등산 통과 터널 명칭 아직 논란 중

### '어등산' '호남대' 맞서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이 이달 말로 다가왔으나 광산구 어등산을 통과하는 터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광주~나주IC 구간이 이달 말 개통될 예정인데도 어등산을 지나는 터널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길이 1.4㎞의 장대터널로 현재 마무리 공사 단계인 이 터널의 이름을 둘러싸고 광산구는 '어등산 터널'을, 호남대는 '호남대 터널'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광산구는 지역의 명산으로 역사관광단지가 들어설 어등산의 홍보를, 호남대는 학교 홍보와 고속도로가 학교 부지를 지남으로써 발생할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로 개통 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터널 이름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터널 이름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로공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화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 등산로 준공 사업 '탄력'

화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등산로 준공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화순군은 지난 8일 남면 남계리에서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 등산로' 준공식을 가졌다.

화순군은 1억5천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해 망가진 주요 등산로 2곳에 나무다리(20m)와 산행로(79m)를 조성했다.

지난해에도 화순군은 남면 남계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용문재 구간까지 11.6㎞에 이르는 신설 등산로를 정비하고 10개의 방향·거리표지판을 설치했다.

모후산은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이 있어 아토피 및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 산림욕을 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후산을 찾는 등산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각종 편익시설 설치에 힘쓰고 있다"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사업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와 연계해 화순의 대표적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
### 완도경찰서 금일파출소

완도경찰서 금일파출소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금일파출소는 최근 금일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홍은석 소장은 "학생 스스로가 학교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관내 학교를 방문,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농업인 무료 한방 건강검진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가 지난 9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과 고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동신대 한방 순천병원 의료진이 검진에 나서 진맥, 침술, 처방과 함께 3일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박진상 지부장은 "농업인과 고객들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100개 기업 유치 해남 경제 살린다"

### 해남군, '2012-100' 프로젝트 추진

해남군이 오는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2012-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3월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해남군은 2012년까지 기업사랑,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해 10년 후 인구 15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은 우선 친기업 정서 확산을 위해 각 읍·면별로 '기업 사랑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업사랑 해남군 추진위원회를 설치, '1읍·면 1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군은 또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시행해 투자유치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사업 계획의 승인이 완료될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하는 한편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고, 고용·창업 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범위를 늘리는 한편 기업지원 확대에 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등의 개정도 추진중이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해남지역에는 220개 제조업체에서 2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190개 업체가 소규모의 농수산물 가공업체"라면서 "최근 대한조선 등 5개의 대형기업을 유치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침체된 해남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 기자lucky@

## '유기농전문단지' 조성
### 강진군, 논정마을에

강진군이 유기농 전문단지 집중 육성에 나선다.

강진군은 지난 2월 '친환경농업 선도마을'로 지정된 신전면 논정마을에 사업비 1억1천만원을 들여 10ha 규모의 '유기농전문단지'를 조성한다.

논정마을 유기단지에는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며 저온저장고와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논정마을은 전체 경지면적 440ha 중 160ha에서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10ha에 대해 유기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